Kagro.org

KAGRO INTERNATIONAL JOURNAL

January / February 2015
Volume 61, Number 1

COLD ACTIVATED BOTTLE
Coors LIGHT
When The Mountains Turn Blue
IT'S AS COLD AS THE ROCKIES!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21 MEANS 21®
AS COLD AS THE ROCKIES™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KAGRO INTERNATIONAL JOURNAL
2015년 1월 / 2월

목 차

6. 회장 인사말

8. 이사장 인사말

9. 신년 인사말

10. 업계 뉴스

13. KAGRO 포토 갤러리

17. 각 지역 협회소식

25. 경제 뉴스

36. 건강뉴스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Officers

President
Seong Chil Heo
New York

Vice-President
Young Pil Kim
Canada
Vice-President
Yo Seop Lee
Washington D.C
Vice-President
Jong Heo
Southern California
Vice-President
Hui Jun Kim
Central California
Vice-President
Gi seon Choi
Washington
Vice-President
Baek Gyu Kim
Georgia
Vice-President
Won Jae Lee
Colorado

****

Auditors

Seung soo Lee
Gwang Ik Lim

Board of Directors

Chairman
Jin Sup Hong
Washington D.C

Vice Chairman
Calvin Choi
Arizona

Vice Chairman
Byeong Mok Gang
New York

Vice Chairman
Gwang Seo Lee
Maryland

Vice Chairman
kwang Yeol Na
Harrisburg, PA

Vice Chairman
Se Ki Kim
Chicago

****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ung Jeo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Yong Wong Han

KAGRO INTERNATIONAL JOURNAL
January / February 2015

CONTENTS

6. President's Message

8. Chairmans Message

9. New year Message

10. Industry News

13. KAGRO Photo Gallery

17. Chapter News

25. Business News

36. Health News

38. Board Members & Sponsors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Canada
U.K.B.A Canada

Editorial Staff

Publisher
Seong chil Heo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회장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 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번창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올라 많은 사람들 가슴에 희망을 주는 을미년에 3만 식품인들과 동포 경제인 모두가 가시적인 발전을 누리시기를 아울러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수 년 동안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유가가 지난 해 가을부터 급락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선도하던 IT 산업은 고품질 저가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도전이 거세지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고가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향방은 언제나 동포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해 동포 경제도 굴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경제 구조상 하층에 속하는 동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올 한 해 동안 회원 업소들의 경쟁력강화와 사업의 다변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높여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며 식품업과 연관 분야의 사업을 접목시켜 회원 업소들이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총연이 2016년에 식품쇼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점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식품쇼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히 이미 일부 전문 업체와 지혜를 나누고 있으며 크고 작은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 업체, 소비자 단체들과 순차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미리 당부 드립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말 것처럼 우리 모두 좋은 날을 향해 오르고 또 올라 모두가 발전하는 을미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

Dear Members & Sponsors:

Welcome and Happy New Year! This is the year of the Goat! I sincerely hope the New Year will be a prosperous and a strong one for all of our KAGRO community.

Some of the signs are positive in the U.S. as we come out of our recession. Oil prices have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past year. Yet, unfortunately, this has a negative effect on our home country, South Korea.

As oil prices become more competitive, prices drop. China, who is one of the biggest manufacturers in the world, therefore, has the competitive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As a leader in the IT sector, Korea's becomes affected. With the combination of Japan's current recessional status and China's lowering prices, Korea is being weighed down on both ends. Either direction would not be ideal.

A similar situation affects our Korean community here in the states. We are aware of the economic inequality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Because majority of KAGRO is made up of small business owners, we can easily fall more into the poor gap of this scale.

However, KAGRO is developing, encouraging, and executing efforts to ensure we stay afloat:

1. Introducing new and international products.
2. Developing and building stronger relationships with existing and new distributor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3.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2016: Exposing the KAGRO community and our businesses to distributors, manufacturers, new product.

Hopefully you are just as excited and positive as I am after reading about the new developments we have in store for our members. We, of course, need your support to ensure that this becomes a success. We need to have a positive outlook in this New Year and overcome these economic barriers.

Thank you and Good Luck in the New Year!

PRESIDENT OF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SEONG CHEL HEO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홍 진 섭 이사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솟아오른 을미년 태양을 바라보며 올 일 년 내내 회원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행복과 번창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빌지만 올 해는 그 소망이 어느 때보다 강렬함을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들과 미주 동포들이 올 해는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맞기를 바라는 마음과 조국에 평화와 발전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미주 동포들의 분노를 샀던 일부 세력들의 종북 활동이 통진당 해산으로 판결이 났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좋아진다는 경제는 상위 그룹에만 적용이 되고 중산층과 그 이하는 여전히 한 겨울의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올 해는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등 행정당국이 힘을 쓰고 연준에서도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일선 사업장에서 더 이상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한숨 대신에 즐거움이 가득 배인 웃음 소리가 터져 나오고 굵게 패인 주름살 대신 환한 미소가 만면에 가득한 날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정진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마음과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총연을 중심으로 뭉치면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 일선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20만 회원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을미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진 섭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김 중 칠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및 협회 회원여러분!

지구촌의 고르지 못한 날씨와 지속되는 불경기, 그리고 점점 더 많아 지고 있는 경쟁속에서 오늘도 생활의 터전을 지키고자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가주협회에서는 그 동안 흩어져 있던 KAGRO가 하나로 통합하였고 지금은 남가주 본부협회를 중심으로 6개의 챕터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지난 10/21/2014에 LA Convention Center에 3만 SQ.FT.을 빌려서 72업체가 참석해 120 부스를 만들어서 1,500 여명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트레이쇼 행사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우리 협회가 한데 뭉쳐서 큰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제는 더 많은 혜택을 회원사로부터 제공 받아 회원업소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연합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남가주 식품상협회가 제반 업무를 한 곳으로 몰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2015년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한인사회와 회원업소 및 이웃을 돕는 메인 스트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되기위해 남가주 식품상협회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열심이 일 할 겁니다. 이제 갑오년을 보내면서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큰 꿈을 이루시고 협회 회원 여러분 들에 운영하시는 사업체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가주 본부식품상협회 회장 김 중 칠

김 세 기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한해도 많은 사연을 뒤로하고 저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어느새 30여년에 세월속에서 수많은 희로애락 겪으며 주류식품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지난 수 년전부터 정부의 각종규제와 회원들의 고령화, 한인들의 동업종 기피현상으로 회원들의 급격한 감소는 회원들에 사기저하와 협회에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상황까지 이어져 회장으로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연 어찌해야 협회를 활성화 시킬수 있나 고심에 고심하며 많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돼 회장으로써 회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까 ? 협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활성화될까 ?

회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의평화, 가족의건강, 사업은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주류 식품상협회 회장 김 세 기

Industry News

Tax Extenders Approved ... for Now

President signs tax extender package, allowing tax benefits to continue for 2014 tax year only.

WASHINGTON-In one of its last actions before adjourning for the remainder of the year, the U.S. Senate passed the House's very short-term tax extenders package. Late Friday evening, President Obama followed suit and signed the bill into law. The package was a last ditch effort put together by House tax writers after a longer-term, bipartisan deal was torpedoed by the president just a few days before.

The upside for our industry is that many of the tax credits that had expired at the end of 2013 are now back on the table for 2014. The downside, however, is that they were extended only for 2014 and will expire again at the end of this year, along with 20-plus credits already slated to expire at the end of the year. Here is a summary of some of the items most important to our industry, that were reauthorized in the package for 2014:

• The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This is a credit employers were able to take for hiring veterans, the long-term unemployed, those on government assistance and other targeted groups. American businesses had been claiming roughly $1 billion a year in WOTC credits.

• Biodiesel Blender's Credit: Those in our industry who have been blending biodiesel products into their diesel fuel had been getting a $1 per gallon tax credit. This is one of those credits that expired in 2013, but in the past Congress has retroactively applied this credit and many in the industry expected this to happen again.

• Compressed and Liquefied Natural Gas Credit: Retailers who sold CNG or LNG were eligible for a tax credit of $0.50 per gasoline gallon equivalent sold.

• Bonus Depreciation: Prior to its expiration, this credit allowed a company to deduct up to 50% more than would normally be available in one tax year for a qualifying purchase. This created a significant boost for companies looking to update major technologies.

• Research & Development Tax Credit: This credit allowed companies to claim significant tax credits on the cos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hey ultimately don't sell. It is seen as a major driver of innovation in American business.

FDA Finalizes Menu Labeling Rules Affecting Convenience Stores

New FDA menu labeling regulations bad for convenience stores and small businesses.

ALEXANDRIA, VA-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 (NACS) expressed disapproval of the sweeping new menu labeling regulations imposed

on convenience stores and other food establishments including grocery stores, movie theaters, and vending machines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arlier today. "The FDA has clearly gone beyond congressional intent by expanding the types of businesses that fall under this law to include convenience stores," said Lyle Beckwith, senior vice president for government relations for NACS. "The one-size-fits-all approach that FDA announced today would treat convenience stores as though they are restaurants, when in fact they operate very differently. It is now up to the bipartisan, bicameral opponents of this regulatory overreach to enact legislation introduced in both houses of Congress that reasonably defines a restaurant as a business that derives at least 50% of revenue from prepared food." The Affordable Care Act, enacted in 2010, requires a national, uniform nutrition-disclosure standard for foodservice establishments. The broad rules announced today seek to establish this standard.

Merchants Respond to Erroneous Claims by Banks

The fight over who pays for data breaches continues as NACS voices concerns about false statements made by banker's group.

WASHINGTON - The ongoing debate between retailers and banks over who foots the bill and bears the responsibility following a data breach is heating up as 2014 comes to a close.

Yesterday, NACS joined retail groups including the Food Marketing Institute,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National Retail Federation, and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to send a letter clarifying what the groups call a misleading survey from the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ICBA), which alleged that banks are shelling out millions of dollars because retailers can't secure their networks.

Throughout much of the year, and with little legal framework and even less governmental guidance, retailers and banks have debated who is at fault in the wake of an attack.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Hill this week, retailers argue they are victims of malicious attacks, are rapidly improving their security and are calling on banks to quickly adopt chip-enabled credit cards, a more secure technology than the current magnetic strip. Banks counter that they are moving toward chip technology, but that it can't protect against the poor security standards at retailers.

The ICBA survey, released Dec. 18, said community banks had to reissue nearly 7.5 million credit and debit cards at a cost of $90 million in the wake of the massive Home Depot data breach, which exposed 56 million customers' payment card information, continuing to advocate that the cost of a data breach should be borne by the retailer who was affected.

The letter signed by NACS and fellow merchant groups argues that the ICBA survey and accompanying statements, contained inaccuracies and misrepresentations. "ICBA cannot simply dismiss data breaches as a retail problem and refuse to recognize the risk to financial institutions -to do so would be a disservice to your members," the groups said in the letter, pointing out that retailers bear equal or greater costs after a data breach, according to a 2013 Federal Reserve study of debit card fraud.

The retailers also called out ICBA on not committing to chip-and-PIN cards. Banks have pledged to move by October 2015 to at least chip-and-signature cards, which still has the microchip encryption, but is backed up by a more fallible signature. "The added security provided when each customer is given a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or PIN has already been shown to make debit card transactions 700 percent safer," the groups said.

C-Stores and Grocers Compete for Dining Dollars

Wall Street Journal reports on the increasing foodservice offerings at chains like Sheetz and Wawa.

NEW YORK - Consumers weighing whether to dine out at a tablecloth restaurant or a fast-food joint now have additional options to consider: grocery and convenience stores, according to a recent article i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article talks about the trend for c-stores and grocers to reformat their stores and strengthen their menus with fresh, made-to-order offerings in order to woo eaters from traditional restaurants and burger joints, leading them to buy other goods the stores sell as well.

Whole Foods is a leader in this strategy, with sales of prepared foods and baked goods more than doubling to $2.7 billion in fiscal 2014, from $1.3 billion in 2007. That puts Whole Foods on a par with restaurant companies like Chipotle Mexican Grill Inc., whose sales were $3.2 billion last year. At the same time, Sheetz has rolled out barista stations that offer fruit smoothies and coffee drinks, as well as full-service kitchens that can make items like mozzarella sticks and burritos, in addition to offering in-store seating. Chains such as Wawa, which makes items from French onion soup to custom-ordered sandwiches, aim to compete with fast-casual chains like Panera Bread Co. in terms of quality, but at fast-food prices.

Sheetz makes its entire menu available 24 hours a day rather than segmenting breakfast, lunch and dinner. The CEO says such flexibility is particularly appealing to customers in their mid-teens to mid-30s, who have been defecting from places like McDonald's. The added offerings bring additional complexity and cost, however. Sheetz today employs an executive chef, a research-and-development team to come up with recipes and cook-time standards, a food-safety department and an analytics team that studies the buying habits of customers to customize food by neighborhood.

China's Chocolate Wars

Competition, and innovation, continues for brands hoping to get a share of the huge Chinese market for chocolate.

NEW YORK - Although Chinese consumers have traditionally preferred salty snacks to sweet ones, the world's chocolate makers have been making converts-and competing fiercely for market share - in the high-stakes market that's home to 1.37 billion people, says a recent article in Ad Age. The local chocolate market has been growing 12% annually, according to Euromonitor International, and China's embrace of chocolate has helped push up cocoa prices and contributed to fears of an international shortage. Meanwhile, Western brands have upped the ante in China by building factories and innovation centers, launching flashy campaigns, buying local chocolate makers and creating over-the-top retail experiences. So far, Mars appears to have come out ahead, says Ad Age, with a projected 39% of the Chinese market in 2014, according to Euromonitor. Its biggest hit is the Dove brand, which accounts for approximately 34% of national chocolate consumption. Hershey, which opened an Asia innovation center in Shanghai, has been working on products that appeal to the Chinese market. It also launched a global brand, Lancaster, in China. The company had a hit with bite-size Kisses while others were selling 60- or even 80-gram bars, because Chinese people tend not to eat large quantities of chocolate in one sitting.

In general, the Chinese chocolate business is concentrated around holidays, and Chinese New Year is the biggie, when brands' gold-covered gift boxes come out. But the ultimate idea is to make chocolate more a part of everyday life, since it's not yet a top-of-mind snack in the region.

KAGRO Photo Gallery

해리스버그협회 장학금 수여식 및 연말 행사

죠지아협회 장학금 수여식 및 연말 행사

시애틀협회 장학금 수여식 및 연말 행사

카나다 뱅큐버협회 연말 행사

CHAPTER NEWS

LA 한인 식품협회

새 양계법 시행 앞두고 한인마켓 무려 70% 올라

계란 값이 급등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던 계란가격이 연말 들어 더욱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가주 양계 규정법을 앞두고 양계업체들의 닭 사육 경비 증가 및 계란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LA 인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계란 도매가격은 최근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자연히 한인마켓에서 판매하는 계란가격도 크게 올랐다. 1.49~1.99달러 선이던 12개입 한 꾸러미는 2.49~2.99달러로 올랐다. 무려 70% 가까이 뛴 셈이다. 사실 계란값 상승, 특히 가주 내에서 가격 상승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주 농무국은 약 3년 전부터 양계장의 닭장 사이즈를 키우는 새 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계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번에 결국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게 됐다는 것. 새 규정에 따르면 가주 양계장들은 닭 한 마리당 116평방피트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미 전국 양계장의 평균 면적인 67평방피트보다 두 배 가까이 넓다. 이미 가주 내 많은 양계업체들은 양계장 시설을 규정에 맞게 바꾸느라 수백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새로운 규정이 가주에 계란을 판매하는 타주 양계장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주에서 지난 한 해 생산된 계란은 55억개. 소비한 계란은 90억개로 나머지는 미주리와 아이오와주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계란 도매업체 GG Gro의 션 허 대표는 "가주 내에는 이미 문을 닫은 양계업체들도 있다. 경비부담으로 타주에서 수입하는 계란 수도 줄어들게 되면 안그래도 부족한 가주 계란 생산량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가격 상승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계란을 활용한 다른 식품들의 연쇄 가격상승도 있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계란값 상승은 줄줄이 오른 식재료 가격으로 가뜩이나 무거워진 한인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해 주고 있다.

H마트 마당몰점 관계자는 "최근 1~2개월 사이 계란가격이 더즌 당 많게는 1.50달러까지 인상됐다. "갑자기 너무 올라서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많다"고 전했다. 하루에 수백, 수천개의 계란을 사용하는 제과점들의 시름은 더욱 깊다. 팥 앙금과 밀가루 가격이 오른데 이어 사용량이 많은 계란까지 올라 원재료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 케익하우스 관계자는 "하루에 사용하는 계란 수 만해도 2,500개가 넘는데 최근 가격이 너무 뛰어 원가 부담이 크다.

LA시 노점상 합법화 본격 심의

LA시가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LA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노점상 합법화와 관련해 구제척인 법규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점상 관련 법규에는 노점상 허가 지역과 업종, 허가증 숫자, 허가증 발급 절차와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LA시는 지난 5월 노점상 합법화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시의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개발위원회와 LA공원국, LA도로관리국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음식류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이위생검사를 맡고, 단속은 LA경찰국이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노점상 합법화는 지난해 11월 호세 후이자와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 노점상 등을 허용하자는 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LA시는 현재 약 1만 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 명의 일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쓰레기 처리와 식품안전, 소음공해, 인근 소매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이 주요 이유다.

일부 관계자들은 "LA다운타운 등은 이미 소음과 치안 문제로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노점상은 갱관련 범죄 등과도 관계가 있어 누가 책임질지 벌써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점상은 '생계형 비지니스'인 만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랜드파크.로스팰리츠.에코파크 주민의회는 일찌감치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55개 지지단체들은 LA시의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시청 앞에서 노점상 합법화에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제리서치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노점상의 연간 매출은 1억 달러로 식품관련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라화나 판매 업소들 범죄의 표적

의료용 마라화나 판매 업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다. 은행들이 이들 업소와의 거래를 꺼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LA 지역 업소들도 24시간 시큐리티 채용 등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국마리화나상인연합회(NCIS)에 따르면 전국의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모두 현금으로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업계 규모에 맞지 않게 현금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소 측은 세금을 낼 때가 가장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직접 들고 정부 기관에 방문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뉴포트비치에서 마리화나 업소를 운영 중인 스티브 디엔젤로씨는 "매번 사설 경비 업체에 의뢰해 특수 보안 시스템이 돼 있는 차량 세 대를 동원한다"며 "경비 업체도 늘 강도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우리 일을 도와주길 꺼려한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마리화나 업계의 돈이 투명한 것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또 "각 주 당국은 마리화나 유통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연방법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마리화나 업계와 쉽게 거래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정부는 올 2월부터 마리화나 업계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 측의 반발이 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한인 식품협회

뉴욕시 시티 바이크 영업방해

뉴욕시 친환경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 '시티 바이크'의 거치

대 문제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에 위치한 일부 상점 주인들이 '시티 바이크' 자전거 거치대 문제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맨하탄 미드타운, 소호 일대의 시티바이크 거치대 인근의 델리, 피자집 등 소규모 상점 주인들은 뉴욕시측에 "거치대가 도로변 주차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로 상점을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차를 잠시 세우고 물건을 사가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시티 바이크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항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시티 바이크 거치대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맨하탄 다운타운, 첼시 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시티 바이크 거치대가 주차공간 부족을 야기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뉴욕시는 소리소문 없이 거치대 10곳을 철거한 바 있다. 또 소호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자전거 거치대가 예술가들의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면 시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차이나타운 주거단지에서는 아이들이 대여소를 놀이터로 삼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죠지아 한인 식품협회

조지아 한인식품협회 장학금시상식 및 송년회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가 14일 한인회관에서 송년회 및 장학금 시상식을 가졌다. 협회는 올 해도 한인학생 2명과 흑인 대학생 8명 등 모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협회는 매년 송년모임에서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장학금 시상식 뒤 수상자들과 시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지아한인식품협회(회장 김백규)는 14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회원, 한인사회 인사, 벤더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장학금 시상식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백규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하나돼 새 한인회관을 건립해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한인사회가 더욱 단결하고 화합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찬과 한국문화원 공연에 이어 진행된 송년회에서 오영록 한인회장, 김성진 총영사, 래리 존슨 디캡카운티 커미셔너가 각각 축사했으며, 코카콜라 등 벤더 및 수고한 임원진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진 장학금 전달식에서 퀸톤 마틴 코카콜라 북미 부사장, 김동욱 제일은행장 등은 박관영(사우스캐롤라이나대), 김재두(조지아텍)군 등 두 한국학생과 8명의 흑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적과 추천서, 자기소개서, 봉사를 중심으로 한 장래희망 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일인당 1,000달러가 수여됐다. 식품협회는 지난 20여년간 1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 회원업소가 흑인 커뮤니티에 소재해 이익 환원 차원에서 흑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백규 회장이 건립위원장으로 활동한 애틀랜타 한인회관 건립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여흥시간에는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

버지니아 한인 식품협회

버지니아주 담배 유통 규제 검토중

버지니아주 정부가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정부는 담배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술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하게

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지니아주 범죄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류관리국(ABC)에게 담배의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버지니아주 범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차량 한 대에 담배를 가득 싣고 타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할 시 생기는 이윤은 약 17만 달러에 달한다. 트럭으로 나르면 4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위원회는 담배 밀매자들이 테러리스트와도 연계된 것으로 분석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013년 뉴욕주와 버지니아주에서 담배 밀매를 해오던 16명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조직과 연관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밀수에 동조한 업주들의 면허를 박탈할 계획이며 이는 매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밀수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담배 세금은 한 갑에 30센트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낮기 때문에 미 동부지역 밀매자들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미주리주가 17센트로 가장 저렴하고 뉴욕은 4달러 35센트로 가장 비싸다.

마이크 오코너 버지니아 식료품협회 회장은 "1%의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99%의 상인들을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면허 등록비 등 추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며 실질적인 밀매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요섭 워싱턴 식품주류상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면허 취득비보다는 규제 강화로 인해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불법판매 적발 시 벌금을 포함한 처벌이 강화되는 게 한인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벌티모어 한인 식품협회

메릴랜드 한인 식품주류협회 장학금 수여식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회장 송기봉, 이하 KAGRO)는 7일 컬럼비아에 위치한 하퍼스 초이스 커뮤니티센터에서 2014 장학금 수여식 및 연말파티를 열었다. 6년 만에 부활시킨 연말 파티에는 워싱턴-볼티모어 일원에서 모두 25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북적였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KAGRO는 션 백 군을 비롯해 모두 9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이들은 모두 300여 명에 달한다.

KAGRO는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협회 발전에 힘쓴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송기봉 회장을 포함해 송영성 원장(편한나라 척추신경), 김진형 대표(선 여행사), 최광희 고문 등 4명에게 오말리 주지사 표창, 김진만 · 홍계식 씨에게는 볼티모어 시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됐다.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KAGRO의 활동과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볼티모어 시 의회에서 리키 스펙터, 워런 브랜치, 윌리엄 웰치 시 의원, 마크 장 주 하원의원 당선자, 미주식품총연합회 홍진섭 전국 이사장, 워싱턴 · 델라웨어 · 해리스버그 KAGRO등에서도 참석, 축하를 전했다.

송기봉 회장은 "20년간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내년에도 어렵고 힘든 경기를 한마음으로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3부 순서에서는 세븐스타 김종국 밴드의 신나는 댄스 파티도 이어졌다.

▷장학생 명단: 션 백, 정윤지, 김도희, 모니카 백, 도나 류, 정진식, 세실리아 김, 이도희, 찬 박

볼티모어시가 공영마켓 개선을 추진

볼티모어시가 공영마켓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커비 파울러 다운타운 파트너십 회장을 공영마켓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지난 여름 은퇴한 캐스퍼 젠코 사무총장 후임으로 로버트 토마스 공영마켓 사무총장 대행을 각각 임명했다.

또 시의 5개 공영마켓 중 최대 마켓인 렉싱턴마켓에는 벨브디어 스퀘어 일일 운영을 감독하던 스테이시 팩을 새 부동산 매니저로 채용했고, 레스토랑과 소매점 임대 전문 트라우트 다

니엘사의 브로커이자 가족이 운영하는 리스 아이스크림의 운영책임자였던 스캇 가필드도 고용했다. 이 같은 인사는 공영마켓회사가 렉싱턴마켓을 현대화 및 첨단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포함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한 것이다. 렉싱턴마켓은 다운타운의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음식점들의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공영마켓 이사회는 페더럴 힐에 소재한 크로스 스트릿 마켓을 재개발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캘리오프 파데모스 시장비서실장은 "공영마켓의 변화는 시장이 시 전역에서 주민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정책 공약을 반영한다"며 "특히 렉싱턴마켓은 다운타운의 수천여 주민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심 허브이자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열쇠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파데모스는 "시장은 모든 인구를 끌어들이고 경제적 동력이 될 마켓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발전을 위한 마켓의 구조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울러는 인적 쇄신은 마켓이 재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마켓의 벤더 구성의 개선을 위한 일부 변화도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마켓은 다른 도시의 성공적인 마켓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하고 식품에 너무 많이 집중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울러는 "나는 마켓이 모든 잠재적 샤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시장이 이를 감안해 이사회 의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데모스는 시공무원이 아닌 이사회 의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는 공영마켓회사에서 17년간 근무한 경력과 건축 관련 배경이 발탁사유이다. 파울러는 그의 경험이 이사회의 렉싱턴 마켓 기간시설 개선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는 "임직원들과 이사회는 모든 수준에서 마켓의 매력을 확대하는 기초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마켓회사의 새 이사로 한인 나영 리 루이 존스합킨스대경영대 교수를 비롯 체사픽 파트너스의 리니 사무엘스, 보주토 매니지먼트사의 존 페줄라 소매자산국장 등이 추가됐다.

시카고 한인 식품협회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시카고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3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일 시카고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45–반대5로 통과시켰다. 이번 인상안은 람 이매뉴엘 시장의 서명으로 발효되는데 이매뉴엘 시장은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2월 시장 ·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채택이 유력했다. 얼마까지 올리냐를 두고 시간당 13달러와 15달러안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13달러안이 채택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8.25달러인 시카고의 최저임금이 내년 7월1일부터 10달러로 오른다. 2016년 7월에 50센트, 2017년 7월에도 50센트가 추가로 올라간 뒤 2018년 1달러, 2019년 1달러가 또 상승해 13달러도 오른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된다. 시카고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올라가면 최저임금도 더불어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단 최대 2.5%라는 제한이 붙고 실업률이 8.5%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상승안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도 있다. 팁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의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소년과 출소자와 같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시카고와는 별도로 주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 장학생 모집
12학년생 대상 추천서 가정환경 성적 등 기준
-8명에 1천 달러씩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는 2015년도 장학생 선발을 앞두고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대학 진학을 앞둔 12학년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인협회 장학생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 에세이, 성적 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를 2월12일까지 식품인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날짜를 준수해야 한다. 장학생은 모두 8명을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각각 1천 달러씩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송기양 식품인협회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장학생 선발기준은 자기 소개서와 에세이 추천서, 성적 증명서 등을 고루 반영한다"며 "장학생이 꼭 성적 우수자라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뚜렷한 목표를 담은 자기 소개서와 균형잡힌 사고에 입각한 에세이, 주위의 공정한 평가가 담긴 추천서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기양 위원장은 또 "날짜를 엄수하는 것도 학생들이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과거에 날짜를 지키지 못해 탈락한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고 강조했다.

식품인협회 장학생 선발에 관련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agro.com)나 전화 267-902-2328로 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 서류 역시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중가주 한인 식품협회

송년잔치 및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침

중가주 한미 식품상협회(KAGRO, 회장 장종희) 와 몬트레이 한인회 가 몬트레이 한인들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송년잔치 및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4일(목) 저녁 5시 몬트레이 한인회와 가 시사이드 소재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한국식당에서'2014 몬트레이 한인 송년잔치 및 KAGRO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친목 도모와 협력업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몬트레이 지역 고교생 13명의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500달러씩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2014 및 KAGRO 장학금 수여식 및 몬트레이 한인 송년잔치 에서 장학금을 받은 13명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응찬 · 장종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인사회와 협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동만 SF총영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겸하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지역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몬트레이 한인단체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 앞으로 더욱 단합하시고 늘 낙관적인 생각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준비해 가시기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한 총영사는 '몬소리'(몬트레이 사물놀이/단장 조덕현)'에게 한국커뮤니티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하버 고등학교의 엘렌 제니아 마그레즈, 놀스 살리나스 고등학교의 제이슨 리, 킹시티 고등학교의 아렌 아레라노 등의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데니스 도냐휴 살리나스 시장, 한동만 SF 총영사, 이용석 영사, 김복기 한인회 건축위원장, 문 이 몬트레이 한국어발전 추진위원 회장, 김기덕 노인회장, 토니 브라라 살리나스 시의원, 토마스 김 SF 한인회장 당선자, 신민호 SV 한인회장 등 북가주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카우치, 엘릭써 등의 벤더 관계자, 장학금 수혜학생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워싱턴 DC 식품주류협회

워싱턴 식품주류협, DC 보건국 방문 협조 요청

이요섭 회장(왼쪽) 등 워싱턴 식품주류협회 관계자들이 DC 보건국을 방문했다.

이요섭 회장 등 워싱턴 식품주류협회협회 관계자들은 3일 보건국을 방문해 리킨 메타 보건국 시니어 부국장과 포리스트 대니얼 박사 등과 위생문제와 위생 검사관들의 태도 등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검열을 나오는 검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국은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주류협회는 또 검열시 확인하는 항목을 보건국으로부터 받아 한인업주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요섭 회장은 "DC 보건국은 쥐가 업소에서 나왔을 때 바로 영업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면서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문제를 해결한 뒤 인스펙션을 다시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DC 한인업소 매니저 라이선스 없어 영업정지

워싱턴DC의 한 한인업소가 매니저 라이선스가 없다고 영업정지를 당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이요섭 회장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푸드와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주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매니저가 이들 제품을 판매하려면 라이선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오늘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에 의해 이를 갖추지 못한 한인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매니저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반도 이전에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면 즉석에서 영업정지까지는 내리지 않았다"면서 "연말을 맞아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매니저 라이선스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꼭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T&G

Absolutely CARNIVAL

MADE IN KOREA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Business News

aT센터가 한국식품의 중남미 시장 공략

aT 센터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식품 총 수출액은 작년보다 67%나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5,206만5,338달러가 상승한 것으로 한국식품이 중남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국식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에콰도르,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6%, 64%, 42% 각각 증가한 증가해 한국식품의 중요한 수요처가 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한국 식품은 참치이다. 참치는 총 4,956만1,962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고사리, 참기름, 오징어, 혼합 주스 등은 모두 전년 대비 3,00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중남미 시장에서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식품의 고공행진 비결은 한국 정부 및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aT 센터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현지를 방문해 식품 전문박람회인 'Sial Brazil'에 참가,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 1만2,000여명에게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벨기에전이 열렸던 날에도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한국 식품 홍보와 함께 민속놀이, 태권도,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공연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aT 센터는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중남미 지역에서 고조됨에 따라 29일 과테말라에서 한국 식품 시식 이벤트 및 K-Pop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aT 센터는 이번 이벤트에 한국 식품에 관심 있는 현지인 3,000명을 초대해 야외 공연장에서 K-Pop 콘서트, 부채춤 공연 등을 진행하며 행사장 주변에 음식부스를 10개 정도 설치해 무료 한국 음식 시식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aT 센터는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지난 7월 과테말라시티 내 한국식품 안테나샵인 'K-푸드샵'을 오픈했으며 한국 식품 판매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식행사 등도 벌이는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펼쳤다.

K-푸드샵은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고급 레스토랑, 카페, 소매점 등이 밀집돼 있어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식품을 알리기에 적합한 장소다. aT 센터 이원기 지사장은 "중남미 전체로 보면 라면, 과자,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이 인기가 높다"며 "한국 문화의 수용도가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K-Pop 홍보행사도 함께 진행하면 한국식품 홍보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버스 1달러만 내면 샌프란시스코까지

단돈 1달러만 내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애너하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OC레지스터는 저가

장거리 버스인 메가버스가 오는 6일 애너하임 노선을 개통한다고 보도했다.

메가버스는 애너하임 교통통합센터(ARTIC)에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를 오가게 된다. LA와 다른 도시에도 정차한다. 버스는 노선마다 하루 2~5번 운행한다. 시간은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구간 8시간30분, 애너하임~샌호세는 7시간40분, 애너하임-오클랜드는 8시간 15분 걸린다. 승차요금은 1달러부터. 마이크 알비치 메가버스 대변인은 "각 구간, 각 노선마다 최소 한 개 좌석 요금은 1달러가 보장된다. 단, 누가 가장 먼저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 날짜가 가까울수록 요금은 올라간다. 화,수,토요일에 1달러 승차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5년 1월 8일 애너하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편도 버스 요금은 5~39달러다.

메가버스는 화장실과 무료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을 갖추고 있으며 1~5달러를 추가로 내면 창가 옆 등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메가버스는 애너하임 노선 운행 첫해 4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메가버스는 2007년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한 뒤 2012년 다시 개통했다. 현재 LA와 버뱅크, 리버사이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새크라멘토를 오가고 있으며 애너하임은 가주 내 8번째 운행 도시다.

메가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Megab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기준 완화되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의 정의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원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

전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을 놓고 아직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2015년) 1월부터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이 50명 이상 종업원 고용주에게로 확산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경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풀타임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파트타임 종업원을 늘리거나 저임금 종업원들을 메디케이드로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비절감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고용주들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건강보험법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조항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일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공화당 장악 의회가 주당 30시간 이상의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 주도로 된다. 물론 이 확대방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없으면 시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시행이 된다면 고용주들의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내년부터 풀타임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종업원 1인당 2,000~3,000달러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또 2016년부터는 종업원 수가 50명으로 낮아져,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길 때는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3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뉴욕의 '아메리칸 레저'의 스트브 카스 대표는 직원의 40%가 주당 30~40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이며 절반 이상이 40시간 이상의 풀타임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상 주당 30시간 이상을 풀타임 종업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카스 대표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30시간 이상의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경비를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트타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더 줄이게 되면 이들 중 많은 수는 직장을 또 하나 찾아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거의 1억4,400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2%에 해당하는 4,660만명이 주당 1~39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9,720만명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연방 노동통계청은 주당 35시간 미만을 파트타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풀타임 기준 완화

지난 4월 공화당이 장악하는 연방 하원은 기존 건강보험법에서 풀타임 직원을 주당 30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공화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화당의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선거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풀타임 종업원의 정의를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새로 출범하는 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삼고 있다고 밝혀 내년 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될 것임을 암시했다.

아파트와 호텔 등에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 스파를 운영하는 카스 대표의 회사는 풀타임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는 월 보험경비는 20~50%에 그친다. 카스 대표에 따르면 대상 종업원의 절반가량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 경비가 해당 종업원 수입의 9.5%가 넘게 되면 뉴욕 주정부에

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개인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카스 대표는 일부 직원들, 특히 시간당 15달러 정도를 받는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만약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비용이 수입의 9.5%가 넘어 개인적으로 주정부 거래소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타임 종업원의 기준을 40시간 이상으로 올릴 경우 카스의 비즈니스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 그의 예상이다.

▲파트타임은 제외

현재의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미만의 종업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풀타임 직원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경우도 건강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예외조항 때문에 근로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30시간 미만 또는 풀타임 50명 미만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많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대표 겸 전 하원예산국장인 덕 홀츠-이킨은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시간을 줄이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다"면서 차라리 풀타임 직원의 시간 정의를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오히려 옹호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엘리스 가울드는 확실한 것은 불경기가 걷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법을 피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는 고용주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당 시간을 40시간으로 올린다고 해도 종업원 근무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뉴욕대 로버트 와그너 공공서비스 대학원의 셰리 글라이드 학장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점심시간을 더 많이 주는 등 아주 다양하다"면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들의 종업원 절반이 주당 40시간 일하고 있으며 3%는 41~44시간을 근무한다고 추정했다.

▲종업원 시간 줄이기

멤버제로 운영되는 의료체인인 '롱지비티 메디칼 클리닉'의 시스 탤벗 대표는 주당 풀타임 근무시간은 40시간이 결정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소간의 숨 쉴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난해 800만달러 매출에 40명의 풀타임 종업원들을 고용한 이 회사는 2016년까지 5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계획인데 현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모두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 커크랜드에 있는 이 의료체인의 의사, 간호사, 행정원 등 스태프의 80%가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종에 따라 월 25~100%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탤벗 대표의 고민은 보험료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하는 종업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주정부 보험거래소에서 정부 보조를 받아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들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풀타임 종업원의 정의를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화당이 의회에서 최소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민주당의 반대 발언인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53석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했지만 필리버스터 저지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상원 민주당 소속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매친과 인디애나의 조 단넬리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12월6일 루이지애나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한 표를 더 추가하게 된다. 미국 고용주협회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미 시민권자라도 2년간 6개월이상 한국체류땐 소득세 부과

2015년부터는 미 시민권자라도 2년간 한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시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2년간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미국 입국심사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 도입 검토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고 LA 등 미국에 내려서는 별도의 입국심

사 없이 바로 공항에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8일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상주하며 미국행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실시하는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 설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3년 이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CBP 요원들이 인천공항에 파견돼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입국심사를 하고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제도가 미국행 여행객들은 인천공항에서 1차적으로 체크인과 보안검색,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출국심사를 받은 뒤 미국 CBP 요원들이 배치된 심사대에서 2차 보안검색을 받아야 되며, 미 공항에 도착 때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를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 인천과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 국토안보부 CBP 부청장 등 조사단이 지난 10월 인천공항을 방문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출입국 관련업무 및 제반 업무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외교부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사단을 구성,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대가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와 아일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테러범들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도시 공항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더블린공항, 캐나다 밴쿠버공항 등 6개국 15개 공항에서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 입국 때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반면,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출국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미국 일부 공항에서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자동 패스포트 컨트롤'(APC)이라는 무인 자동 입국심사대가 운영되고 있어 출발지 사전 입국심사제도가 이러한 무인 입국 시스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한국 법무부의 출국심사를 통과한 미국행 여행객이 인천에서 2차 입국심사장을 통과 못해 아예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보건당국 '카라멜 사과' 금식령

연방보건당국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미 전역에 사전 포장된 '카라멜 사과' 금식령을 내렸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는 19일 통사과에 카라멜을 입힌 간식 '카라멜 사과'가 원인이 된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최근 5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수주에 걸쳐 10개 주에서 28명의 리스테리아균 감염 보고가 있었다. 미주리 주와 뉴멕시코 주가 각 5건으로 가장 많고, 미네소타 · 텍사스 · 애리조나 주에서 각 4명, 위스콘신 주 2명, 노스캐롤라이나 · 워싱턴 · 캘리포니아 · 유타 주에서 각 1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특히 발병 환자 9명이 임산부 또는 신생아로 확인됐다. CDC는 소비자들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장 판매용으로 사전 포장된 카라멜 사과 제품을 당분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땅콩류나 초콜릿, 작은 사탕 조각이 뿌려진 제품도 모두 포함된다. 리스테리아균 감염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임산부와 신생아,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발병할 수 있다. 발열과 근육통, 두통,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악화될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온라인에서 위조 불법 복제품을 판매 단속 강화

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미국 및 전 세계 사법기관들의 공조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 3만여개가 적발돼 전격 폐쇄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지금까지 미국 내 및 유럽 등지에서 온라인으로 위조상품 등을 팔아온 불법 웹사이트 2만 9,684곳을 적발해 이들의 도메인 이름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폐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ICE 산하 범죄수사국(HSI)이 주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협력센터가 전 세계 사법당국과 함께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로 적발된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 및 루이뷔통 등 명품들의 위조상품은 물론 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불법 복제품, 심지어 바이애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품의 짝퉁제품들까지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의 약 7~10%는 가짜 짝퉁제품들로 추산되고 있다며 위조제품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품 거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 의약품의 경우 고객들의 건강을 해치고 목숨까지 잃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 냉동식품 미국 주류마켓에서 입지를 넓혀

기존에 냉동만두로 한정돼 판매되던 한국 식품이 파전, 비빔밥 등 점차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는 것.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냉동기술의 발달로 보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활용해 만드는 제품이 많아지면서 냉동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안 음식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 덕분에 정크푸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냉동식품, 특히 한국 냉동식품을 선택하는 주류 및 타인종 고객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트레이더 조에서 'Scallion Pancak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중인 파전은 오븐이나 팬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한 완전 조리식품이다. 야채가 주 재료로 특히 웰빙식품에 관심이 많은 백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마켓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비빔밥 보울'(Bibmbap Bowl)은 간편함과 더불어 고기와 몸에 좋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무역관은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동양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최근 글루텐 프리 열풍으로 쌀, 콩, 야채로 만든 식품에 관심이 높다"며 "한국 냉동식품의 풍부한 영양소 및 안전성을 알린다면 미 대형마트 진입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스코에서 판매중인 'CJ 비비고 미니완탕'은 실란트로와 치킨으로 다양한 타인종 입맛에도 맞춘 것이 특징. 한식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지인의 입맛도 놓치지 않아 충분히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유망 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내 냉동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373억 5,690만달러로 전

년 대비 3% 성장했으며 전반적인 소비 확대에 힘입어 2018년까지 8%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냉동식품의 대미 수출은 2013년 194만 2,000달러로 전년 대비 6.36% 상승했다. 특히 한국 제품은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의 경우 꾸준한 수입 증가로 전체 수입 규모에서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는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으므로 한국 제품의 영양적인 측면과 저칼로리, 유기농, 웰빙 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인이 선호하는 제품 디자인, 포장, 문구 등을 꾸준히 개선해 미국 시장에 맞춤형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니코틴 및 담배중독으로 이끌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USA 투데이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관련 새로운 보고서 두 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코네티컷 고교생의 약 25%, 하와이 청소년의 약 29%가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코네티컷 고교생들의 12%와 하와이 청소년의 18%는 지난 한 달 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난 2013년 조사대상 고교생의 4.5%, 중학생의 1.1%가 최근 30일 내에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한 자료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하와이 소아과학회에서 15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량이 매년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지의 1월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자담배 판매액이 117억에 달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한국정부 새해 시행

새해 1월부터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해외 위급상황 때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정보센터가 운영되는 등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고,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마지막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을 떠나는 한국인들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한국 내 자산관리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외국민들은 2015년 1월22부터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내년부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현지에서 위급상황 발생 때 외교부에 즉각 연락을 해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2014 Hottest Items from Korea

www.vilac.co.kr

Vilac Cup Rice

Conveniently enjoy a meal!
Ready in just 3 minutes!

4 Flavors (Fried Kimchi / Seafood / Chicken Curry / Black Bean Sauce)

Sunghyun Seo
82-51-630-7363 | seosh@vilac.co.kr

www.daesangfnf.com

Daesang FNF Kimchi

Eunkyung Woo
82-2-3290-8841 | ekwoo@daesang.com

www.mhrg.kr

Manuka and Ginseng Manuka Honey & Red Ginseng Stick

Angela Lee
82-2-577-3389 | angela@mhrg.kr

www.chois1.com

Choi's 1 Seaweed Snack

A true "Super Food" from the Sea!
5 Flavors (Original / Natural / Teriyaki / Hot & Spicy / Wasabi)

Butler Oh
1-347-556-3113 | butler.oh@gmail.com

www.bcsroyal.com

bcs International Seaweed Brittle

The healthy alternative to chips!
4 Flavors (Sesame Seed & Sea Salt / Crushed Almond / Sesame Seed & Hot & Spicy / Wasabi & Sea Salt)

Susan Kim
1-718-392-3355 | skim@bcsroyal.com

www.gitdeum.com

Gitdeum Seaweed Crunch

Seaweed Crunch is Kimbugak (Korean traditional snack) made with seaweed and rice flour.

- Gluten-free
- No synthetic coloring
- No artificial flavoring

Tae-sung Yang
82-63-715-1900 | tsyang@gitdeum.co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Center New York

Korea Agro-Trade Center, New York
111 Great Neck Road, Suite 503, Great Neck, NY 11021
mkim@at.or.kr | Tel:516-829-1633

Visit us at www.kagro.org

Our organization profile
Advertising opportunity for KAGRO Journal
Link for various KAGRO capture and Affiliate Organizations.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의
의견과 잡지에 대해 느끼신점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사업운영하며
협회에 건의사항 등 모든글들을 환영 합니다. 영어나 한글 편하신 언어로
사진 · 연락처와 함께 emai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nd your submission to : kagronational@gmail.com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Advertising space available for KAGRO Journal

KAGRO Journal Ad ask Seong c. Heo 917 650-2125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e- mail : kagronational@gmail.com

There is nothing quite like it.

Change your diet without sacrificing taste!

- ✓ All Natural
- ✓ Low Glycemic Index
- ✓ Low Carb
- ✓ Excellent Source of Whole Grain
- ✓ Good Source of Fiber
- ✓ Good Source of Protein

...and do you know what the best part is?

breaDr.™ whole wheat bread tastes like traditional bread!

Use a serving of **breaDr.™ whole wheat bread** in place of traditional bread as a part of a healthy diet to help maintain healthy blood sugar levels. A human clinical study found the glycemic index of **breaDr.™ whole wheat bread** to be 39!!!

breaDr™
Living Made Healthy

www.breadr.com

PEPSICO

pepsi

Lay's

Tropicana

QUAKER

내과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겨울나기 비법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기 쉽고, 일단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다. 하루에 30분 정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로 빠르게 걷기, 등산, 조깅,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겨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고혈압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피가 지나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져 심장 운동에 장애가 오고 심장이 약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외출 시 방한에 신경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여러 개의 공기층을 만들어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목도리나 장갑, 모자 등으로 신체가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잠깐 나갈 일이 있을 때, 잠깐이라고 방심한 채 외투 없이 나가는 행동은 금물이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는 것만으로도 혈압의 급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냉수 마찰은 당연히 위험하다.

천식은 찬 바람이 부는 가을과 겨울철에 급증하는 질환이다. 천식이란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 질환으로, 환경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공기가 탁하면 천식 등의 알레르기 인자가 활동하기 좋으므로, 날씨가 춥더라도 2시간에 한 번은 창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천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급격하게 온도와 습도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의 세 가지 주요 증상이 특징이다.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집과 주변의 집

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 인자를 없애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를 60~65%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빨래를 널어 놓거나 화초를 키우면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한편,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안구건조증과 눈물흘림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실내에 난방기를 가동하면 습도가 떨어져서 안구건조증이 더욱 악화되는데, 만성화 되면 각막염 등의 질환이나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보지 않아야 한다. 중장년층 이상에게 나타는 눈물흘림증 역시 눈에서 코로 통하는 눈물길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므로 심할 때에는 안과를 찾아서 진단을 받는게 좋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기 쉽고, 일단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다. 하루에 30분 정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로 빠르게 걷기, 등산, 조깅,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도 좋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의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면역력에 관련이 있는 체내 비타민D는 대부분 햇볕을 받아 합성되므로,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야 한다.

수면부족으로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는 것 역시 필요하다.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몸속의 엔돌핀이 증가하고,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흡연가라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렴 등 신종 플루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현미, 수수, 보리, 율무 등의 잡곡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챙겨 먹자.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A, B, C, 칼슘과 칼륨, 인, 철분, 망간 등의 무기질이 함유돼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의 발생과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은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채소에는 이러한 성분이 훨씬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13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허 성 칠	New York
대외수석 부회장	김 영 필	Canada
대내수석 부회장	이 요 섭	Washington D.C
부 회장	허 종	Southern California
부 회장	김 희 준	Central California
부 회장	최 기 선	Washington
부 회장	김 백 규	Georgia
부 회장	이 원 재	Colorado

이 사

이 사 장	홍 진 섭	Washington D.C
부 이사장	캐빈 최	Arizona
부 이사장	강 병 목	New York
부 이사장	이 광 서	Maryland
부 이사장	나 광 열	Harrisburg, PA
부 이사장	김 세 기	Chicago

본부 임원

홍보 이사	이 창 희	Philadelphia
사업총괄 부회장	이 종 환	Harrisburg, PA
여성분과 위원장	김 윤 옥	Virginia
총무이사	김 익 주	Canada

감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임 광 익	Colorado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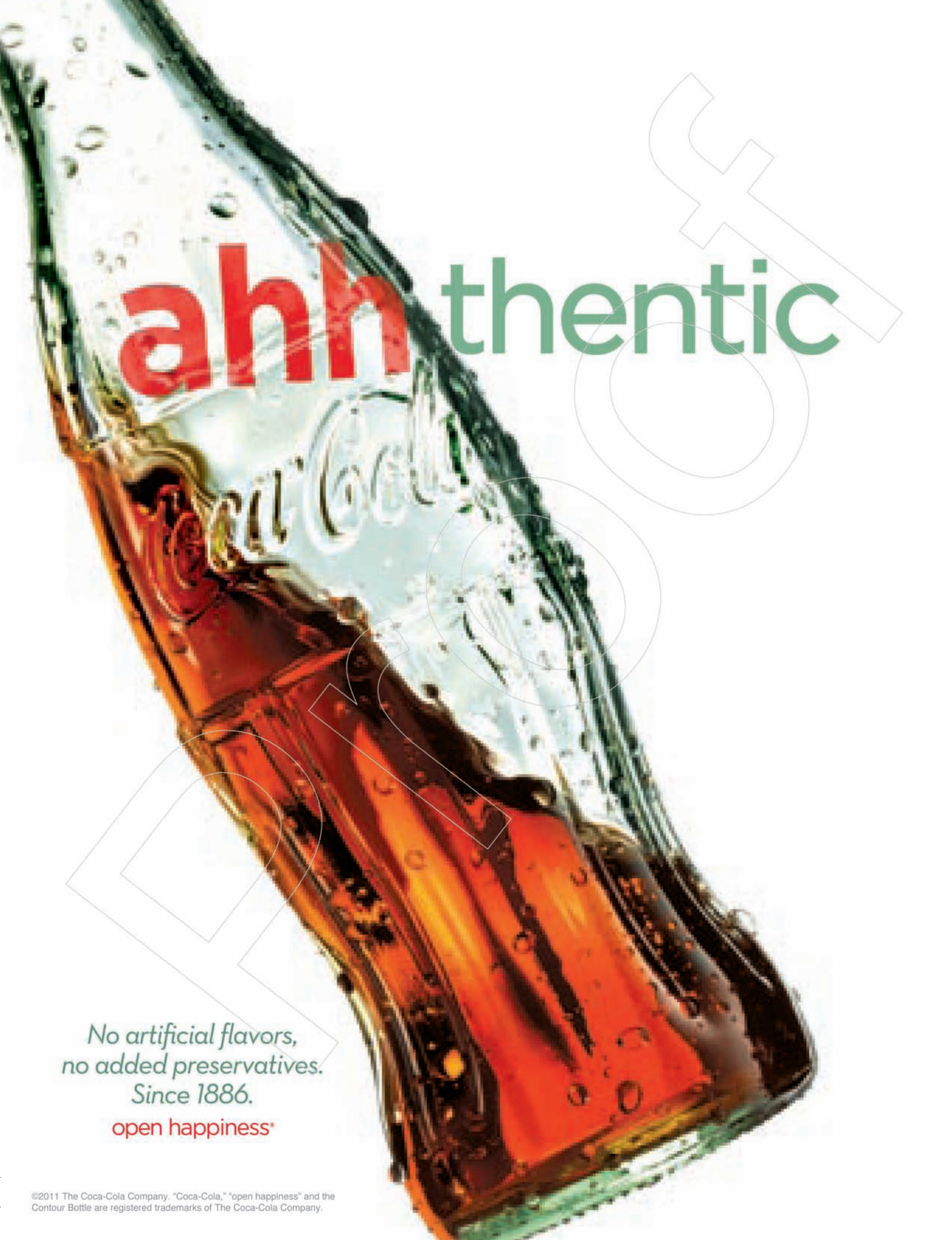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2011 The Coca-Cola Company. "Coca-Cola," "open happiness" and the Contour Bottle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he Coca-Cola Company.

AUSTRALIA
ASIA
AFRICA
AMERICA
AB
Budweiser
This is the famous Budweiser beer. We know of no brand produced by any other brewer which costs so much to brew and age. Our exclusive Beechwood Aging produces a taste, a smoothness and a drinkability you will find in no other beer at any price.
Budweiser
KING OF BEERS.
Brewed by our original all natural process using the Choicest Hops, Rice and Best Barley Malt
Beer · Bier · Cerveza · Birra · Biere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RESPONSIBILITY MATTERS
©2008 Anheuser-Busch, Inc., Budweiser® Beer, St. Louis, MO